

광주·전남에 반도체 단지 유치할까 ‘촉각’

국가첨단산업위, 다음주 발표 예정 전남도, 경쟁력·성장 잠재력 등 강점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결정이 임박하면서 전남도가 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국내 유일의 초광역 특화단지를 목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다음주께 전국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는 광주와의 접경지인 광주 첨단 1·3지구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한 상태다.

전남도는 일단,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현이 가능하고 부지, 용수,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 등을 들어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당장, 풍력에너지 기술적 잠재량(167.5GW)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6971GWh)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데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4647MW·전국 1위), 풍력발전 설비용량(425MW·전국 3위) 등 재생에너지 활용 경쟁력을 갖췄다.

관련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생태계도 구축했다.

우선, 교육부 공모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729억) 유치에 성공한데다, 과기부 공모로 진행된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시각데이터이중첩 합 반도체·68억)에 선정되면서 되는가 하면, 목표에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센터(36억)를 구축해 설계부터 제작(외주), 후공정 등 전 과정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향후 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을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도 정부와 주관 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찾아 이같은 강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준비 상황과 산업 경쟁력 등을 홍보해왔다.

전남도는 또 반도체 특화단지와 연계, 전남지역 특성을 살린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력반도체 기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성지로 준비된 지역임을 내세우며 향후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용수, 전력, 교통, 전후방사업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춘 대단히 매력적인 지역”이라며 “반도체 불모지였던 전남이 첨단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신거점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가부장관, 전남도청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체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오후 전남도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청 교육감 등과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에 탑승하여 체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전면 공개’나 ‘일부 공개’나...광주 도시계획위 조례 결국 보류

회의 공개 범위 놓고 논란...다음달 회기까지 공개범위·방법 논의키로

비공개로 해오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공개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전면 공개, 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한적 공개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임위에서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시와 시의회는 다음 달 회기까지 공개 범위와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이다.

회의장 방청이나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하되,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 위원이 특정됨으로써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 역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정해 주요 내용이 충돌했다.

시와 시의회가 두 개정안을 병합해 대안 발의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전남 갑자기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는 수정안에 ‘비공개 원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

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에 공개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이에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가는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절충안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산업건설위원장인 김나운 의원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와 소통이 필요한데 시에서 이런 태도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드려든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중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이 아닌 의결 기구이고 이해관계 등이 크다”며 “위원들도 원활한 토의를 위해 일정 부분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해 그 전제하에 공개 범위를 검토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농촌 빈집, 임대주택·마을호텔로 변신

전남도, 민관합동 ‘맞춤형 재생 프로젝트’ 추진

전남에 남아도는 빈집이 농촌 맞춤형 시설로 탈바꿈한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남군, 이마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해 귀농·귀촌 임대주택, 마을호텔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시설로 만드는 민관 합동 사업이다.

해남군이 프로젝트 첫 대상으로 선정돼 이마트 지정기탁금 2억 원을 포함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4억원, 국비와 지방비 4억 5000만 원

등 8억 5000만원으로 빈집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이달부터 빈집 20곳을 개축해 임대주택과 마을호텔로 조성한다는 게 해남군 계획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촌·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민간기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로 농촌 빈집 문제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 농촌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견고 싶은 우수 가로수길’은 어디?

市, 14~28일 온라인 설문조사 1차 심사 5곳 중 최종 1곳 선정

광주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견고 싶은 우수 가로수길’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 추진하고 있는 ‘견고 싶은 가로수길’ 선정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로수길을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난 7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구 너릿재 옛길, 서구 무진대로,

남구 오방로, 북구 서암대로, 광산구 무진대로를 차지구별 대표 가로수길로 1차 선정했다.

1차 심사는 차지구별로 견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2곳씩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태적 건강성, 사회·문화적 기능,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광주시는 1차 심사서 압축된 5곳에 대해 시민 투표(70%)와 전문가 현장심사(30%)를 실시해 최종 1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소통·참여·참여광장-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실시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견고 싶은 우수 가로수길’로 최종 선정된 1곳의 차치구에 내년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강욱 광주시 녹지정책과장은 “‘견고 싶은 우수 가로수길 선정’은 도심 가로수길의 가치를 알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핵심과제인 ‘30년 뒤 견고 싶은 거리 조성’에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민 투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제복 승객’ 우선 배정

31일부터 시행...소방관·경찰관·군인 등 대상

승객이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비상문 인접 좌석이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3개 기종 38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 94개다.

박 의장은 “현재 국적항공사 보유 여객기 335대 중 236대는 잠금장치가 있어 비행 중 비상문을 못 열게 설계돼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개방이 가능한 비상문이 있다”며 “이 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해 유사한 돌발 상황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제외한 38대만 ‘제복 입은 승객’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 우선 배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사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온라인 판매 때 고지하고,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해당 좌석을 선택하면 발권 카운터에서 신분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삼가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선친(故 학교법인 송원대학교·학교법인 송원학원 이사장 고제철)喪事에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망중이라 우선 지면을 빌어서나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베를어주신 정성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대내 건강과 평안을 마음깊이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14일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 학교법인 송원학원
故송원 고제철 이사장 유가족 일동 올림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